

# 토끼와 개



**우리** 집에 개 한마리가 들어온 것은 매우 불행한 일이었다.

그 개는 우리집 옆방에 세들어 사는 사람들이 데리고 들어온 개였다.

개 말이 나왔으니 말이지 나는 개를 싫어한다. 싫어한다기보다는 무서워한다. 골목길에서 개를 안고 다니는 것을 보거나 숲속의 산책길로 개를 데리고 다니는 것을 보면 그 개의 주인이 혐오스러워지기까지 한다.

도사견이나 셰퍼드나 진도견을 보면 머리끝부터 곤두선다. 나는 그 개들한테 절대로 적의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내 안면표정이나 부드러운 눈길이나 걸음걸이로 보여주려고 애를 쓴다. 휘파람 소리를 내며 손을 까불어 주기도 한다. 그 개의 목에 쇠줄이 걸리어 있다 할 지라도 나는 그 개한테 교만한 몸짓이나 말을 결코 내뱉을 수가 없다. 만일에 그 개가 나한테 적의를 가지고 날뛰다가 목에 걸려 있는 쇠줄이 끊어지면 어떻게 될 것인가.

「당신이 토끼라 그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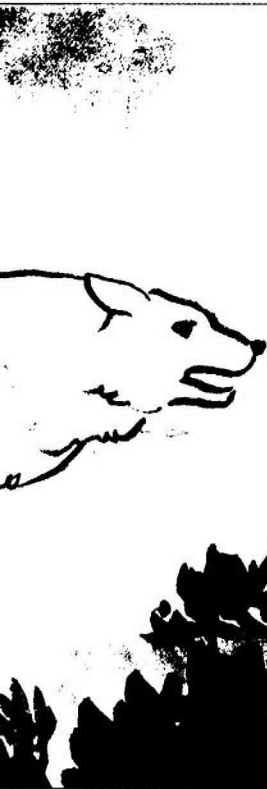
아내가 말했다. 내가 토끼혜에 태어난 사람이므

로 천성적으로 개를 싫어하거나 무서워할 수밖에 없다는 말이었다.

아내의 말이 맞는지도 모르지만, 어쨌든지 나는 개의 눈빛을 마주 대하기가 겁나곤 한다. 네발로 기어다니는 그놈들은 직립보행을 하는 사람에 비하여 키가 작다. 체구도 왜소하다. 사람한테는 없는 꼬리도 있다. 그러므로 그들은 사람한테 열등감을 가지고 있다. 나는 그 열등감이 무섭다. 열등감을 가진 자들은 열등감을 느끼게 한 상대를 공격할 기회를 노리곤 한다. 그 상대의 눈치를 자꾸 살피고, 노골적으로 교만을 떠는지 어찌는지를 파악하려고 힐끗거린다. 만일 털끝만치라도 교만스러움이 발견되면 목에 털을 세우고 으르렁거리고 짓어대는 것이다.

개가 사람한테 열등감을 느끼는 것은 운명적인 것이다. 또한 사람인 내가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는 개한테서 두려움을 느끼는 것 또한 운명적인 것일 터이다.

「여보시오, 여기는 사람들이 산책하는 곳입니다. 어린 아이들이 다니기도 해요.」



### 한승원

- 전남 장흥 출생
- 서라벌예대 문예창작과 졸업
- 68년 대한일보 신춘문에 소설 「목선」 당선
- 소설집 : 「앞산도 평하리」, 「안개바다」, 「미만하리」
- 장편집 : 「...」

나는 산책길에서 개를 데리고 다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곤 한다. 가끔 개에게 운동을 시킨다고 목의 쇠줄을 풀어주어 숲속을 줄달음질치게 하는 개주인을 만나기도 하는데, 그때마다 나는 그 개주인에게 따지곤 한다.

「당신은 주인이기 때문에 당신네 개가 무섭지 않는지 모르지만, 다른 사람들은 무섭습니다. 아이들은 아마 당신네 개를 보자마자 혼절을 할지도 몰라요.」

내가 이렇게 말을 하면 개주인은

「우리 개는 아주 순해요. 절대로 물지 않습니다.」

하고 웃으면서 말을 한다. 그 개주인의 웃음은 나를 겁보라고 깔보는 듯 싶다. 나는 그 웃음에서 호위를 위해 사병(私兵)을 많이 거느리거나 권총이나 칼을 허리에 차고 있는 사람의 얼굴에 어리곤 하는 거만과 특권의식이 서리어 있음을 발견하고 울화가 치민다.

「그 개가 반드시 물어뜯어야만 그 사람이 피해를 입는 줄 아십니까? 육체적인 물어뜯김보다 정신적인 물어뜯김이 더 무서운 피해를 주는 겁니다. 숲속

에서 갑자기 나타난 저 짐승을 보고 흠칫 놀라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은 심장이나 정신에 큰 피해를 입는 겁니다. 만일에 아이 하나가 까무라치기라도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이고, 그렇게 정신적으로 약한 사람은 집안에 가만히 들어앉아 있으셔야만 하겠지요. 미안합니다. 저는 당신과 이런 말을 한가하게 주고 받을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 영만이 운동을 시키고 출근을 해야만 합니다.」

나는 그 개주인이 자기 개를 「영만」이라고 이름지어 부르는 사실에 울화가 끓어 견딜 수가 없다. 개한테 사람대접을 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나는 그 개주인을 향해 「개 같은 놈」하고 속으로 소리친다. 그에게서 개스러움을 발견한 것이다.

여느 때 나는 그 개 같은 사람들하고 늘 싸우면서 살아가고 있는 듯한 생각이 들곤 한다. 짐승스러운 사람들은 도처에 득시글거린다. 셰퍼드나 도사견들을 수없이 많이 거느린 채 으스대는 사람들이 있다. 사람들을 그 개들처럼 훈련시켜 거느리고 살아가는 높은 자리의 사람들도 물론 있다.

「물어라. 췌, 물어라.」

만일에 주인이 이 한 마디 명령만 내린다면 그 호신용 개들은 자기의 주인을 위하여 충성을 다하는 것이다. 어디선가는 셰퍼드를 키우던 한 사람이 자기한테 빛돈을 받으러 와서 성가시게 한다고 개의 쇠줄을 풀어놓아 빛돈 받으러 온 사람을 물어뜯게 했다고 한다.

지난해 겨울에 우리는 옆방에 살던 동생네를 어렵사리 아파트 한 채를 구하여 분가시키고 아파트를 구하느라고 들어간 돈의 일부라도 메울 생각으로 곧 다른 사람을 넣었던 것인데, 그 사람들한테 개가 있다고 한다.

계약을 할 때는 개 있다는 말을 하지 않더니 막상 이사를 오기 며칠 전에 세 들어올 아주머니가 「키우던 개가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하고 말을 한 것이었다.

「글쎄요. 우리 애 아빠가 짐승을 싫어해서 마당이 넓어도 개나 고양이를 키우지 않는데...」

아내는 이렇게 말했다. 세 들어올 아주머니는 난처해하며

「어디 마땅하게 줄 데도 없고, 정든 것을 팔아 넘

**나는 그 개와 토끼띠인 나의 운명적인 불협화를  
생각했고 그 개 때문에 내가 치일지도 모른다는  
불안스러운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 개와 나 사이에는  
독한 살이 끼어 있음이 분명하다.**

기기도 뭐하고... 데리고 와서 얼마동안 키워보다가 안되겠으면 어떻게 처분을 해버릴까요。」  
하고 말을 했다.

아내가 세 들어올 사람들의 개 이야기를 했을 때 나는 싫은 정부터 들었다. 날마다 대하게 될 개의 눈빛이 생각났고 나를 향해 킁킁 짖어댈 모습이 떠올랐다.

「글쎄, 아무리 우리가 주인이기는 하지만, 자기네 셋방 앞마당에서 키우겠다는데 기어이 안된다고 말을 할 수도 없고... 사실은 방을 세로 내준다는 것은 집 일부를 일정 기간동안 그 사람들한테 모두 마음대로 사용하도록 허락해준다는 것인데...」

내가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지만, 아내는 「당신이 싫다 한다고 곧 팔아버리든지 어쩌든지 하라고 해야겠거꾸만요。」  
하고 말했다.

한데, 세 들어오는 사람들은 전부터 남의 집에서 세를 살던 사람들이 아니었다. 하던 장사가 원활하지 못한 데다가 남편이 뽕소니차한테 치여 직장을 쉬며 치료를 받는 바람에 집을 팔아먹고 처음 셋방살이를 하러 들어온 것이었다. 그 속사정을 알고 나자, 개를 적극적으로 없애라고 나서기가 쩡하고 안타까웠다. 내가 싫은 정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것보다는 세 들어올 사람들이 개를 없애고 나서 서글퍼할 일에 대하여 나는 생각하고 또 생각했다. 집을 팔고 남의 집으로 셋방살이를 하러 오는 신세도 서러운데, 정든 짐승과 이별까지 하여야 하다니...

사십대 중반의 부부는 아들 딸 둘과 함께 방 두칸 안에 다 넣을 수 없는 많은 이삿짐들을 가지고 이사를 왔다. 물론 귀가 좋긋한데다가 흰 바탕에 갈색 점이 있고 세모꼴의 머리에 눈이 또록또록한 앙증스러운 개를 데리고 왔다.

이튿날 내가 조심스럽게 모퉁이의 셋방 문앞을

엿보았을 때, 개는 두번째 상면하는 주인어른인 나를 으르렁거리면서 노려보았다. 나는 반사적으로 몸을 돌렸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면서 나는 나를 노리던 개의 멀건 눈빛을 생각하며 몹시 불쾌했다. 개를 데리고 들어오지 말라고 모질게 말해버릴 것을 잘못했다고 후회했다.

이 자식, 집주인을 몰라보다니... 두고 보아라.

나는 그 개와 토끼띠인 나의 운명적인 불협화를 생각했고, 그 개 때문에 내가 치일지도 모른다는 불안스러운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 개와 나 사이에는 독한 살(煞)이 끼어있음이 분명하다. 이 집 안에 개가 있게 되면 그 개가 치이든지, 내가 치이든지 할 것이다.

한 열흘쯤 뒤였다. 나는 마당을 어정거리다가 개 생각이 났고, 살금살금 세 내준 방쪽을 가보았다. 가면서, 개가 으르렁거릴 것이라고 미리 짐작했다. 뜻밖에 개는 없었다. 하늘색 칠을 한 개집도 보이지를 않았다. 가슴에서 뽕 하는 소리가 들렸다. 세 들어온 사람들이 개를 체질적으로 싫어한다는 주인 집 어른의 비위를 거스르지 않기 위해 팔아버리거나 누구한테 주어버렸는지도 모른다. 그냥 키우라고 할 것을 그랬다. 대문간 밖으로 나왔다가 연탄재 옆에 내다버린 개집과 그를 매놓던 쇠줄과 풀어내버린 목도리를 보면서 나는 아픈 가슴을 주체할 수가 없었다.

그날 저녁때 나는 아내에게 세들어 사는 사람들이 이 개를 없애버린 이야기를 했다. 아내는 눈을 내리깔며 이렇게 대꾸를 했다.

「미안해 죽겠어요. 개가 까닭없이 죽었대요. 주변에서 쥐약을 놓은 것도 아닌 모양인데 갑자기 무슨 병으로인가 죽었대요. 개가 당신한테 치인 것인지 어떤 것인지...」